미얀마 민주화 참여 않는 불교에 대중 '실망'

'사프란 혁명'때완 다른 분위기
일반 국민 중심의 대항 흐름에
민주진영 중심으로 존경심 저하
"지도자 역량 발휘되는지 의문"

박영빈 객원기자


2007년 사프란 혁명당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앞장선 출가자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주황빛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앞서 민주화 시위에 나서 '사프란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2007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그러나 지난 2021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출가자들의 참여가 미미하면서 미얀마 내에서 불교계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월 11일 일본의 '토다이 신문 온라인'은 미얀마 불교 연구가인 쿠라모토 류스케 도쿄대 교수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현재 미얀마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이고 출가자는 약 50만명으로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버마족이 중심이 돼 최초 통일왕조인 바간 왕조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국교로 지정됐기에 국가구조가 불교를 전제로 형성됐다. 19세기 영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불교적인 구조는 붕괴됐지만, 미얀마는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을 성립했으며 현대에도 미얀마 사람들의 의식에 불교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쿠라모토 교수는 이러한 전제에서 "미얀마에서는 불교와 정치·민주화 운동이 역사적으로 항상 함께 해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7년에 발생한 사프란 혁명의 경우 당시 군에 진압되는 일반 국민들의 항의를 대신하여 출가자들이 항의시위를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다. 큰 특징으로는 출가자들이 국부 관계자로부터의 보시를 일체 거부하는 복발갈마(覆鉢羯磨)를 시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미얀마 불교교단은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불교적인 방법으로 표출, 일반대중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민주화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사프란 혁명 이후, 미얀마 내부에서 불교도 이외의 타종교도나 소수민족도 받아들여 국가를 형성하자는 진보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력이 확대해 가면서, 보수적인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대로는 미얀마가 불교국가가 아니게 된다는 위기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쿠라모토 교수는 분석했다.

미얀마의 출가자들에 의한 불교 내셔널리즘이 일어나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반이슬람, 반로힝야 운동이 이어졌다. 이 결과 샤프란 혁명의 기수였던 출가자들은 오히려 불교를 옹호했던 군부와 관계가 진전됐으며, 이후 미얀마에서 진행된 총선에서 일부 영향력이 강한 출가자들이 군부출신의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021년 일어난 군부 쿠데타 이후, 사프란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출가자들이 군부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얀마 대중들의 불교계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미얀마의 SNS에서 뜨거운 화제였던 한 익명의 투고는 "쿠데타 후, 미얀마의 테라와다 불교가 진정 신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재해를 앞두고 승려들의 지도자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이 남으며, 오늘날 스님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사회에 대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인다"고 단언했다.

쿠라모토 교수는 "미얀마에선 지금껏 불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금기였다"면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출가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프란 혁명 때처럼 출가자가 국민 쪽에 서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흐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반 국민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물론 민주진영에서도 이전과 같이 출가자에 대한 존경은 가지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전통적인 불교와 미얀마 정치의 연관이 새롭게 정의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나미 불교사전〉 20년 만에 개정판 발간

최신연구 반영 광범위 인기
'읽을거리' 사전 활용 기대감

1989년 처음 발간되어 전 세계의 불교계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이와나미 불교사전(岩波仏教辞)〉이 약 20년 만에 개정, 제3판이 출간돼 화제다. 지난 1월 3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신연구 성과를 반영한 사전의 출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불교의 용어나 사상은 물론 의례와 역사 등 광범위한 항목을 해설하는 〈이와나미 불교사전〉의 개정 3판이 지난해 11월 완성됐다. 〈이와나미 불교사전〉은 1989년 당시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박사와 중국 사상사 연구자로 저명한 학자인 후쿠나가 미츠지(福永光司) 박사 등을 편자로 초판이 출판되었다. 이번 3판에는 불교학자는 물론, 근대 역사학 연구자 등 6명의 연구자들이 편집자로 추가됐다.

편집자들은 제3판 출판에 붙인 후기를 통해 "제3판 편집에 있어서 기존 항목을 재검토해 최신연구 성과를 담는 것과 동시에, 신항목도 다량으로 추가됐다"면서 "역사상의 불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있는 종교이자 사상으로서 불교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전을 출간한 이와나미 서점 측 역시 공식 출간사를 통해 "이번 3판에는 근대불교를 비롯한 최신연구 성과를 반영, 200항목 이상이 늘어나 약 5000항목이 담겼다. 단순한 사전이 아닌 풍부한 불교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는 읽을거리로도 사전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개정되어 나온 〈이와나미 불교사전〉 3판. 사진출처=이와나미 서점

특히 이번 제3판에서는 '환경과 불교' '인터넷과 불교' '재해와 불교'와 같은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적용되어 보이는 모습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고, 근대 불교에 관해서는 불교가 서양에 소개된 첫 무대로 꼽히는 '만국종교회의' '정교분리' 등의 항목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한역으로 옮겨진 불교 용어에 대해서는 원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병기함과 동시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번역어가 생겼는지에 대해 중국 고전의 용례를 함께 등재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좀 더 집중하였다.

새로운 사전 출간에 일본 현지 불교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한 연구자는 "전통적인 불교가 근대화되면서 현대로 이어지고, 또 영미권에 전해진 복잡한 흐름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살필 수 있다. 연구의 징검다리로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호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티베트 문화 지켜달라"

설 명절 맞아 축원 메시지 보내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티베트인들에게 보내는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라는 제하의 축원 메시지를 보내고 "티베트 문화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 있는 동포들과 망명 중인 동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망명 생활과 중국의 핍박 등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우리 티베트 동포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비록 중국 공산당이 우리 티베트인들의 종교적 신앙을 침해하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신념과 문화를 더욱 확고히 고수해 왔다"며 "이에 티베트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인 사이에서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기뻐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문화를 계속해서 향유하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티베트의 문화는 만국의 보물과 같다"며 "우리의 문화는 마음 수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선행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현상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늘날 서양인들이 왜 우리 종교와 전통에 관심을 갖는지 또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 라마는 "나는 티베트 내에서 고국을 지키고 있는 동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무기가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자라나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티베트의 풍습을 부디 계속해서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사찰 강도 침입…불교계 불안 확산

괴한 3명 총으로 승려 위협



미국 전역서 사찰 대상 강도·절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불교계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에서도 사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2월 11일 NY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불교 사원에 3명의 강도가 침입했다.〈사진〉 이들은 당일 오후 2시 25분께 프로스펙트 공원(Prospect Park) 인근에 위치한 왓 사마키(Watt Samakki) 불교 사원 뒷문을 통해 침입, 사원 내에 있던 스님 4명에게 총을 겨누며 현금과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현금과 재산을 강탈해 달아났다.

경찰은 현재 피해 규모와 강도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님들에 따르면 강도들은 보시함과 스님들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도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찰 관계자는 "스님들에게 평소 보시함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두자고 말했지만 스님들은 신도들을 신뢰했다"며 "보시함에 꽤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안 강도들이 이를 노리고 총으로 스님들을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20일 오전에는 미국 테네시주 머프리즈버러에 위치한 미국의 왓 암파완 사원 요사채에 괴한이 침입해 보시함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 날 왓 암파완 사원에서 약 50㎞ 떨어진 파드마삼바바 사원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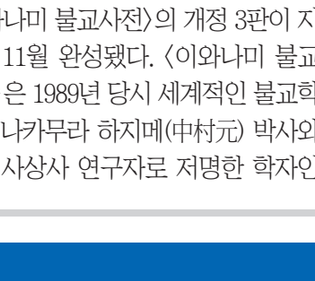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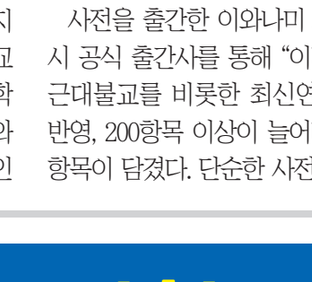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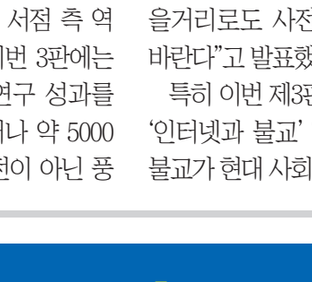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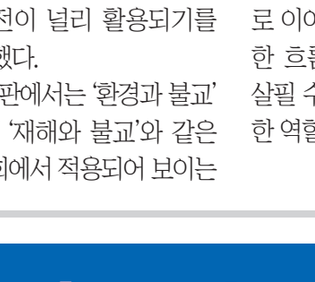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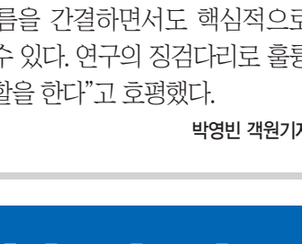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